

Safety Pictures

업무협약에 따른 베트남 NLP 대표단 방문



▲ 2005. 8. 16~20 베트남의 NLP(국립노동보호원) 대표단은 2004년 4월 24일에 안전협회와 갖은 업무협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 과정 수행을 위한 공동세미나 세부 추진 사항을 위해 협회 방문을 하였다.

포항지회 안전관계자 산재예방을 위한 체육대회 실시



▲ 2005. 7. 21~22일 양일간 포항지회 회원 및 대행사업장 안전관계자 37명은 관내 우수사업장을 방문하고 지역내 안전관계자 단합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레프팅행사를 가졌다.



강원지회 안전관계자 두산주류(주)강릉공장 견학



▲ 2005. 7. 14 (주)대영레미콘 등 29명의 강원지회 회원 및 대행사업장 안전관계자는 두산주류(주) 강릉공장을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견학하고 생산제품의 시음회 행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기지사업소 무재해 10배 달성



▲ 2005. 7. 19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기지사업소는 1993. 5월 창립과 함께 시작한 무재해 활동이 2005년 5. 17일 무재해 10배의 금자탑을 세우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국공항공사 무재해 2배 달성



▲ 2005. 7. 15 한국공항공사는 2003. 10. 1부터 2005. 5. 28일까지 전 임직원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으로 무재해운동을 추진한 결과 20개월 만에 무재해 2배를 달성하였다.

“산업재해, 월요일·점심시간 직전 발생률 높아”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 및 사망자가 월요일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점심시간 직전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산업재해 사망자 2,923명 중 월요일 사망자가 505명으로 17.3%를 차지, 요일 중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2004년 역시 2,852명의 산재 사망자 중 17.3%인 488명이 사망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돼 올 5월까지 총 사망자의 시간대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점심시간 직전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서도 동일했다.

시간대별로 산재발생을 살펴보면 2003년 사망자 중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542명이 사망해 18.5%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2004년 역시 527명이 사망해 18.7%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올해도 역시 지난 5월까지 179명(17.6%)의 사망으로 이런 현황을 이어갔다.

한편 월요일 다음으로는 화요일에 사망재해가 높았고 목요일, 금요일 순으로 이어졌으며 시간대도 10시부터 12시 사이 다음으로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비교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